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Child Rear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김순옥, 김현숙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Soon-Ok Kim(200061@shinhan.ac.kr), HyeonSuk Kim(kimh@shinhan.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양육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분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은 t-test, ANOVA, 가족지지에 따른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에 대한 차이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배우자 직업, 배우자의 자녀돌봄 시간에 따라, 양육효능감은 연령, 출신국가, 결혼경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양육부담감은 배우자지지, 가구소득, 연령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지지, 배우자의 자녀돌봄 시간, 연령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있어 양육부담감은 가족지지, 연령, 배우자의 자녀 돌봄 시간,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주여성들의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및 가족지지 향상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배우자지지 | 가족지지 | 양육부담감 | 양육효능감 |

### Abstract

This study was proposed in obtaining basic data for an intervention programs of the stable child care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support from the spouse and family on the child rear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Subjects consisted of 110 marriage immigrant women in Gyeonggi-do in December, 2014. SPSS/WIN 22.0 program was used for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gure out burden and efficacy of child rearing throug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creased burden of child rear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young age, lower level of education, low income and less spending time to raise their children by husband. Additionally, the increased efficacy of child rear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young age and using two languages. The pressure of the child rear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pouse support, income, and old age. The efficacy of child rearing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pouse support, spending tim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by family, and ages.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burden of child rearing among immigrant women increased by old age ( $\beta = -2.097$ ,  $p < .05$ ) and less time to raise their children by husband ( $\beta = -2.165$ ,  $p < .05$ ). It is important to provide spouse and family support to encourage desirable child rearing behavior. These results may provide to improve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 rear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 keyword : | Marriage Immigrant Women | Spouse Support | Family Support | Child Rearing Burden | Child Rearing Efficacy |

\* 본 논문은 2014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4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26일

수정일자 : 2016년 05월 23일

교신저자 : 김현숙, e-mail : kimh@shinhan.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과 이주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민자가 2014년 295,842명으로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 2020년에는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문화적 이해 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차별이나 소외감, 인권유린 등의 문제로 한국사회에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2]. 게다가 이주와 함께 바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어 결혼 후 임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6개월이고, 1년 3개월 만에 첫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정서 및 문화, 특히, 언어를 배우고, 익히기도 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책임지게 되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환경에의 적응과 함께 부모가 되는 과정을 비슷한 시기에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3][4].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연령이 어리고 첫 임신인 경우가 많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와 대책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이종교를 겪고 있다[4]. 이렇듯 한국어 능력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은 심리적 위축과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및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녀양육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고 양육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어 양육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어려움 1순위가 자녀양육으로 나타나고 있다[5].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이주여성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최순재[7]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부적응 현상을 유발하고, 안지영[8]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행행동 등 아동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전상미[9]는 어머

니가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등, 결국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초래하여 가족전체에게 심각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경우 자녀들의 성장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0].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양육부담감의 반대 개념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적응과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8][11].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어 자녀의 제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반대의 경우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과 부모역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자녀의 긍정적 성장발달에 방해 요인이 된다[12]. 즉,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주요한 지표가 되며 양육경험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6].

김선희[13]는 자녀양육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자국과 환경과 문화가 다른 낯선 한국에서, 더욱이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나이에 출산과 양육에 대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지지의 일차적 지지체계는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와 가족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존처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1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 이주여성의 양육부담감은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데 배우자 및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의 발달특성, 자녀양육 효능감, 자녀양육 태도, 스트레스 [10] 등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실제 자녀양육의 스트레스 및 부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재요인과 이주여성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이주여성들의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에 유용한 변인임을 확인한 바, 경기일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 정도를 평가하고,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이들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녀양육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가족들의 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양육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 및 양육효능감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가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종속변수인 양육부

담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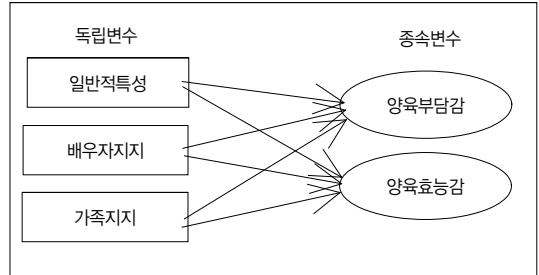


Figure1. Conceptual framework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수행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대학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다(승인번호: SHIRB-14-01-007).

연구수행은 경기북부 소재 다문화센터 및 외국인사회통합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중 연구의 목적 및 연구진행 과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설명들은 후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자녀가 취학 전인 아동을 둔 여성, (2) 기초 이상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25, 예측요인 8일 때 표본 크기가 10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수는 110명으로 적정 표본수에 충족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였으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G도, Y시 다문화센터 및 외국인사회통합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 한 후 기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 3. 연구 도구

#### 3.1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김혜자[16]가 사용한 '배우자의 보살핌 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총 12점에서 48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3.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박지원[17]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간으로 김은실[18]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 상 문장의 부정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긍정 문항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가족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가족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움으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제해결 관련된 정보, 필요한 돈, 물건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총 12점에서 60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3.3 양육부담감

양육부담감은 오가실[1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남연희[20]가 수정·보완한 양육부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부담감은 총 28개 문항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28점에서 140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남연희[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9,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92였다.

#### 3.4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 & Wandersman[21]이 16문항으로 된 부모역할 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을 9문항으로 변안, 수정한 신숙재[22]의 척도를 4문항으로 수정한 박소은[2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4점에서 16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소은[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관련변인 수준은 빈도분석과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은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 3) 배우자 및 가족지지에 따른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과 상관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 4)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56%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51.8%, 배우자도 고등학교 졸업 56.4%로 많았다. 가족의 평균 월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65.4%로 가장 높았다. 국적은 베트남이 46.4%로 대부분 이었고, 결혼기간은 1-5년이 65%로 많았으며, 결혼 경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경우가 29.1%, 동거 형태는 핵가족이 75%, 한국어 사용이 74%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1명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가 66.7%로 많았고, 배우자가 1일 자녀 양육을 하는 시간은 3시간 미만이 78.3%로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부담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6.30, p<.01$ ), 사후검증에서 20대가 40대보다 양육부담감이 높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F=3.19, p<.05$ ), 중졸, 고졸, 대졸 순으로 양육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F=5.23, p<.05$ ),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양육부담감이 높았으며( $F=4.16, p<.05$ ), 하루 3시간 이하가 7시간 이상보다 양육부담감이 더 높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자녀 수, 종교, 출신국가 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육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5.49, p<.01$ ), 사후검증에서는 40대, 30대, 20대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출신국가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42, p<.01$ ), 필리핀 출신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이 가장 낮았다. 결혼경로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3.79, p<.05$ ), 종교나 국제결혼을 한 사람의 소개가 결혼중개업소나 지인소개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4.28, p<.05$ ),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는 평균 3.30점, 최소값은 1.0점, 최대값은 4.0점이고, 가족지지는 평균 4.21점, 최소값은 1.17점, 최대값은 5.0점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감은 평균 3.01점이며, 최소값은 1.25점, 최대값은 4.38점이었다고, 양육효능감은 평균 3.01점, 최소값은 1.25점, 최대값은 4.0점이었다[Table 2].

## 3. 대상자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배우자 및 가족지지와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부담감은 배우자지지( $r=-.190, p<.05$ ), 소득( $r=-.271, p<.01$ ), 연령( $r=-.300,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지지( $r=.280, p<.01$ ), 남편의 아이 돌보는 시간( $r=.308, p<.01$ ), 연령( $r=.338, p<.01$ )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양육부담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58, p<.01$ )[Table 3].

## 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가 양육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양육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1단계에서 통제한 후 2단계에서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부담감에 대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5.5%였으며,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포함된 2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20.0%로 약 4.5% 증가하여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R^2=.200, F=2.928, p<.01$ ). 다중공선성을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분석결과 1.10-1.9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 Durbin-Watson 1.347로 나타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최종 모델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부담감이 높았으며( $\beta=-.225, p<.5$ ), 배우자가 자녀돌봄 시간이 적을수록 양육부담감은 높았고( $\beta=-.240, p<.05$ ),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양육부담감은 높았는데, 이는  $p<.1$ 에서 유의하였다( $\beta=-.215, p<.1$ )[Table 4].

## 5.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7.0%였으며,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포함된 2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28.0%로 11% 증가하여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R^2=.280, F=4.544, p<.001$ ). 다중공선성을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분석한 결과 1.10-1.9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 Durbin-Watson 1.347로 나타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최종 모델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beta=.225, p<.5$ ), 배우자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beta=.395, p<.001$ ). 그러나 가족지지는 양육부담감에 부적영향을 미쳐,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49, p<.1$ )[Table 5].

Table 1. Differences in burden and efficacy of child bearing related to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0)

characteristics	n(%)	Burden of child rearing		Efficacy of child rearing			
		M±SD	F(post hoc)	M±SD	F(post hoc)		
Age	23-29 <sup>a</sup>	62(56.4)	3.17±.64	6.304**	2.87±.66	5.493**	
	30-39 <sup>b</sup>	38(34.5)	2.90±.59	(a>c)	3.21±.84	(c>b)a)	
	40-47 <sup>c</sup>	10(9.1)	2.45±.57		3.57±.39		
	average	29.76±5.58					
Education	elementary <sup>a</sup>	3(2.7)	3.56±.27	3.199*	2.91±.87	2.423	
	middle <sup>b</sup>	18(16.4)	3.20±.59	(b>c)d)	3.20±.59		
	high <sup>c</sup>	57(51.8)	3.10±.66		3.10±.66		
	university <sup>d</sup>	32(29.1)	2.77±.62		2.77±.62		
Education of husband	elementary	2(1.9)	3.18±.97	.998	2.20±.41	2.208	
	middle	7(6.7)	3.11±.48		3.11±.48		
	high	62(59.6)	3.15±.64		3.15±.64		
	university	33(31.7)	2.91±.64		2.91±.64		
Income	under 2,000,000	37(34.6)	3.24±.69	5.232*	2.91±.53	.090	
	over 2,000,000	70(65.4)	2.94±.61		2.97±1.14		
Number of child	one child	85(77.3)	2.95±.65	2.315	2.99±.76	.250	
	two child	25(22.7)	3.18±.70		3.08±.70		
	average	1.29±0.45					
Average age of child		3.64±2.03					
	Host country	china <sup>a</sup>	20(18.7)	3.03±.61	1.611	3.23±.77	4.420**
		vietnam <sup>b</sup>	51(47.4)	3.20±.59		2.87±.71	(c>b)
		phillipine <sup>c</sup>	13(12.1)	3.02±.76		3.69±.49	
		cambodia <sup>d</sup>	10(9.3)	2.64±.60		2.97±.57	
		others <sup>e</sup>	13(12.1)	2.82±.70		3.34±.71	
average		5.33±2.59					
Marriage duration	1-5 year	65(66.3)	3.05±.63	1.446	2.93±1.12	.141	
	6-10 year	31(31.6)	3.13±.69		3.04±.68		
	over 11 year	2(2.0)	2.33±.64		3.12±.17		
	average	5.33±2.59					
Marriage route	agency <sup>a</sup>	32(30.5)	3.12±.67	.415	3.17±.66	3.797*	
	family <sup>b</sup>	25(23.8)	2.94±.67		3.15±.71	(d.)a>c)	
	acquaintance <sup>c</sup>	25(23.8)	3.07±.70		2.66±.85		
	others <sup>d</sup>	23(21.9)	2.99±.58		3.30±.66		
Habitation type	nuclear family	81(75.0)	3.05±.64	.104	2.97±1.05	.082	
	extended family	27(25.0)	3.00±.69		2.91±.64		
Language use	Korean(80% over) <sup>a</sup>	80(74.1)	2.99±.60	.70	2.97±.67	4.286*	
	two language(50%) <sup>b</sup>	26(24.1)	3.13±.74		3.35±.90	(b>a)	
	English <sup>c</sup>	2(1.9)	2.62±.70		4.00±.00		
Number of child	one child	85(77.3)	2.95±.65	2.315	2.99±.76	.250	
	two child	25(22.7)	3.18±.70		3.08±.70		
Main person who rearing children	self	70(66.7)	3.01±.58	1.691	3.08±.80	.238	
	husband	6(5.7)	3.66±.45		3.16±.46		
	parent in law	6(5.7)	2.87±1.09		2.87±.58		
	married woman's parents	2(1.9)	2.89±1.32		3.37±.88		
	facility	21(20.0)	2.89±.78		3.01±.72		
Husband child rearing time	under 3hr <sup>a</sup>	83(78.3)	3.11±.62	4.169*	2.94±1.02	.217	
	3-5hr <sup>b</sup>	21(19.8)	2.74±.71	(a>b>c)	2.97±.77		
	over 7hr <sup>c</sup>	2(1.9)	2.29±.53		2.50±.70		
	average	2.51±.1.33					

\* p<.05, \*\*p<.01\*\*\*<.001

Table 2. Degree of effect: burden and efficacy of child bearing, husband and family support

Variable	Mean			Total		
	M±SD	Min	Max	M±SD	Min	Max
Husband support	2.94±.53	1.00	3.92	39.65±8.44	12.00	48.00
Family support	3.76±.54	1.17	4.50	50.52±9.10	14.00	60.00
Burden of child rearing	3.01±.66	1.25	4.38	72.25±16.04	30.00	105.00
physical	3.19±.86	1.20	5.00			
emotional	2.90±.76	1.25	5.00			
social	2.77±.81	1.00	4.40			
economical	3.53±.77	1.00	5.00			
Efficacy of child rearing	3.08±.75	1.00	4.00	12.32±3.00	4.00	16.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urden and efficacy of child rearing

Variable	age	age of husband	education	education of husband	income	ability of Korean language	time of child rearing	husband support	family support	burden of child rearing	efficacy of child rearing
age	1										
age of husb	.245*	1									
education	.249**	-.323**	1								
edu. of husb	.058	-.390**	.595**	1							
income	.385**	-.214*	.345**	.350**	1						
ability of K. lang	-.179	-.020	-.214*	-.107	-.058	1					
time of child rear.	.312**	.082	.028	-.131	.271*	.079	1				
husband support	.227*	.049	.303**	.072	.314**	.029	.229*	1			
family support	.062	-.075	.142	.083	.322**	.001	.036	.515**	1		
burden of child rear	-.300**	-.048	-.162	-.006	-.271**	.035	-.111	-.190*	-.181	1	
efficacy of child rearing	.202*	-.016	.110	.097	-.015	-.067	.251*	.258**	-.036	-.178	1

p<.05, \*\*p<.01 \*\*\*p<.001

Table 4.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burden of child rearing

phase variable	I			II			VIF
	B	β	t	B	β	t	
Intercept	95.805		7.052	110.878		7.337	
Age	-5.991	-.225	-2.097*	-6.147	-.231	-2.184*	1.141
Education-wife	-2.275	-.103	-.766	-1.738	-.079	-.576	1.928
Education-husband	.928	.038	.275	1.608	.066	.479	1.962
Marriage duration	5.094	.158	1.517	4.608	.143	1.380	1.105
Husband child rearing time	-4.579	-.240	-2.165*	-3.114	-.163	-1.414	1.361
Husband support				-.052	-.028	-.229	1.490
Family support				-.384	-.215	-1.828	1.413
	R2	.155		.200(.175)			
	F	3.071*		2.928**			

\*p<.05, \*\*p<.01 \*\*\*p<.001

Table 5.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efficacy of child rearing

phase variable	I			II			VIF
	B	β	t	B	β	t	
Intercept	3.043		1.182	2.980		1.086	
Age	1.174	.230	2.168*	1.150	.225	2.251*	1.141
Education-wife	.765	.182	1.360	.330	.078	.602	1.928
Education-husband	.432	.093	.675	.689	.148	1.130	1.962
Marriage duration	.938	.153	1.475	.666	.108	1.099	1.105
Husband child rearing time	.082	.022	.204	-.026	-.007	-.064	1.361
Husband support				.142	.395	3.456***	1.490
Family support				-.083	-.241	-2.167*	1.413
	R2	.170		.280(.218)			
	F	3.439**		4.544***			

\*p<.05, \*\*p<.01 \*\*\*p<.001

#### IV. 논 의

인간발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최초의 사회적 환경으로 아동의 발달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어린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양육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자녀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배우자지지는 자녀 양육효능감에, 가족지지는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는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 및 양육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11][24]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이주여성에게 배우자는 부모역할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양육에 대한 정보나 충고 및 지지를 제공해주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통해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25][26]. 또 본 연구대상자들은 확대가족형태가 25.0%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아 배우자의 지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지지는 양육부담감과 효능감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양육부담감, 양육효능감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경선[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바, 이주여성들은 낯선 이주국에서 어린나이에 출산, 양육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는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높을 경우 양육부담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3]. 그러나 가족지지는 양육효능감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넓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은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고 한 선행연구[28] 결과와 달랐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부족, 낯선 한국의 양육방식으로 인해 양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남편이나 시어

머니에게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육아방식을 주장하는 편이 많다. 이렇듯 가족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면 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에서 오히려 소외되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머니로서 정체성 확립과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그러므로 시어머니나 가족의 의견보다는 이주여성 스스로 자녀의 건강관리 등을 고려하면서 자녀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국의 자녀양육 방법이나 교육관에 대한 문화를 존중해주는 적절한 가족지지가 필요로 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지지, 소득,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부담감은 낮았고, 또 배우자지지,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자녀돌봄 시간이 길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았다. 이는 Shapiro[2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자신과 일치하고, 남편도 같은 부모로서 양육을 도와준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모효능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이주여성은 대부분 충분한 준비와 대책 없이 바로 임신을 하고, 친정가족의 도움 없이 출산하게 되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절대적 의존처는 남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겨진다[25].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은 연령이 많을 경우 양육부담감은 낮아지고, 양육효능감은 증가하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30]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남편의 자녀돌봄 시간이 길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미숙과 문혁준[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양육스트레스로 부터 갈등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대처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31].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자녀양육부담감은 3.01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지현[4]의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양육부담감과 같았으며, 경제적인 부담감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인 부담감이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대상자들은 남편의 경제력이 월 200백만원 이상이 65.4%로 높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표준생계비'가 5,563,340원이고, 근로자 월평균



입금 총액이 3,129,000원(2014년 10월 기준, 56.27%)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32], 생활상에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3]. 반면 사회적 부담감은 육아 때문에 사회생활 및 활동의 제약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가 평균 1.3명으로 적고, 남편이 2.5시간/1일 자녀를 돌봐주고,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섯째, 양육부담감은 연령, 학력, 가구소득, 남편의 자녀 돌봄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선행연구[10]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 학력,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 직업이 없을수록, 남편이 아이 돌봐주는 시간이 낮을수록 양육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9]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7세이나 23~29세의 비율이 56.4%로 대부분 연령이 어리고,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77.3%로 초산모가 많아 양육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초산모의 경우 양육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녀양육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사결정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주도하므로 양육주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양육스트레스가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4].

여섯째, 양육효능감은 3.0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박소은[23]의 연구 2.86점, 김도희[34]의 연구 2.91점으로 본 연구가 더 높았으나, 국내결혼여성 대상 김미숙과 문혁준[6]의 연구는 3.47점으로 나타나 이주여성들이 국내여성들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낮았다.

양육효능감은 연령, 출신국가, 결혼경로, 한국어사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현경[35]의 연구결과와 상응하며, 연령이 높을 경우 부모역할 수행과 만족도가 높아 성숙한 부모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필리핀 출신국가 이주여성이 베트남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아 이영남[36]의 연구와 유사하였고, 김현경[35]의 연구와 달랐다.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3].

필리핀과 베트남은 동남아국가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국가와 비교하여 양육효과성이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국가들은 유교권을 통해 부모, 자녀사이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밀접하며,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줄 뿐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수준이 높음으로 자녀를 지지할 수 있는 역량이 크기 때문이다[30]. 또 종교단체나 국제결혼 경험자가 소개한 경우가 결혼중개업소나 친지 소개보다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짧은 기간에 결혼을 하므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 언어장벽, 문화차이 때문에 자녀양육을 도움 받기가 쉽지 않기로 볼 수 있다[22].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모국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생활에 이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배우자지지는 2.94점, 가족지지는 3.76점으로 중간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보다 높았다[37]. 선행연구[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은 가구소득 월 200백만원 이상이 65.4%로 높고, 배우자 학력 91.3%가 고졸이상, 결혼기간 5.3년, 연령 29.7세, 한국어 능력 보통 이상이 79.0% 높아 배우자지지가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결혼기간이 오래되어 한국의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첫 임신인 경우가 많아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어가 서툴고,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가 적어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시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의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시부모 등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10].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는 자녀양육효능감에, 가족지지는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감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방안으로 배우자와 가족지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 일개지역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편의 모집하여 연

은 결과이므로, 타 지역 이주여성 및 기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한국어 기초과정을 이수한 대상자들을 통해 수집하였으므로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다국어 설문지를 준비하여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설문내용을 작성하는데 응답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에 대해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양육부담감과 양육효능감은 중간이상으로 높았고, 배우자 지지 및 가족지지도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감은 연령, 학력, 가구소득, 배우자 직업 및 자녀돌봄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양육효능감은 연령, 결혼경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양육부담감은 배우자지지와, 가구소득, 연령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양육효능감은 연령, 배우자지지와 자녀돌봄 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부담감은 가족지지와, 연령, 배우자의 자녀돌봄 시간,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 배우자지지는 자녀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배우자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 연령대별 어려움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배우자 및 가족지지 중재방안을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자 선

정에서 기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www.mogaha.go.kr](http://www.mogaha.go.kr)
- [2] Y. J. Lee,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of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Korean Journal Woman Psychology*, Vol.12, No.2, pp.83-105, 2007.
- [3] 정혜영, 정옥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8권, 제2호, pp.277-297, 2011.
- [4] 김지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제12권, 제1호, pp.46-60, 2009.
- [5] 서지명, *경북지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정책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김미숙, 문혁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8호, pp.25-35, 2005.
- [7] 최순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도덕성과의 관계 - 한국과 일본의 비교 -,"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7권, pp.518-522, 2005.
- [8] 안지영,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9] 전상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 요구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김춘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1] O. M. Teti and D. M. Gelfand,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62, pp.918-929, 1991.
- [12]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Vol.24, No.2, pp.126-148, 2003.
- [13] 김선희,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4] 김도희, 김성이, 신호진,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3호, pp.53-78, 2007.
- [15] S. M. Reece and G. Harkless, "Self-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b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Vol.4, pp.198-215, 1998.
- [16] 김혜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5-11, 2008.
- [17]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18] 김은실, *정신장애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정신 장애인 인지한 가족기능 및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9] 오가실, "사회적지지 모임이 발달지연아 어머니의 부담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1997.
- [20] 남연희,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 지원체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21] J. Gibaud-Wallston and P. L. Wandersman,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1978.
- [22] 신숙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23] 박소은,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J. Belsky,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Vol.55, pp.83-96, 1984.
- [25]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25-268, 2009.
- [26] C. Izzo, L. Weiss, T. Shanahan, and F. Rodriguez-Brown,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Community*, Vol.20, pp.187-213, 2000.
- [27] 한경선, *여성결혼 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8] G. F. Melson, G. W. Ladd, and H. Hsu,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64, pp.1401-1417, 1993.
- [29] J. R. Shapiro and S. C. Mangelsdor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Vol.23, No.6, pp.621-641, 1994.
- [30] 이교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과성 영향변인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1] C. Johnston and X. J. Mash,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18, pp.167-175, 1989.

- [32] 한국노총, 2014년 표준생계비 추산 발표, 아시아 경제신문, 김봉수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816400608170>, 2015.
- [33] 김지연, 국제결혼가정의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4] 김도희,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 문화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5] 김현경,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격차 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연구, 제14권, 제5호, pp.229-254, 2009.
- [36] 이영남,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7]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김 현 숙(HyeonSuk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박사)
- 2007년 8월 : University of Michigan(보건학 석사)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Michigan(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사회과학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저 자 소 개

김 순 옥(Soon-Ok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2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사회과학 및 교육 콘텐츠 개발